

2022 년 1 월 29 일 “예수님의 비유(27) 열매와 나무”(눅 6:43-45)

예수님의 열매와 나무 비유는 내면의 눈이 열려서 마음과 양심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영적 진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내적 상태에 대한 지적

사람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이란 사람됨을 의미합니다. 한 인격은 성격, 기질, 성향, 안목, 습관, 방식 등을 통합(연결과 조화)하는 과정을 견습니다. 통합의 한 예가 ‘마음과 말’입니다.

45 절 ‘...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사람은 평상시에 마음 속에 선을 갈무리하든지, 악을 갈무리합니다(갈무리 = 물건 같은 것을 정리하고 간수하는 것을 뜻함). 타인을 향해서 마음 속에 쌓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악을 쌓은 마음에서 악의 말이 나오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유아적 퇴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뜻에 일치하는 성품과 태도를 갖추고 그것을 자타가 인정할 때,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숙(성화)의 과정이 따라옵니다.

[2] 퇴행인가, 통합인가?

이전에 받은 은혜가 삶과 인격에 스미어 통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도 화석화됩니다. 퇴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고 허락하셨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인격의 통합을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따라야 함을 놓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은혜 받은 경험을 계기로 어떤 일을 닦칠 때마다 믿음과 사랑의 긍정적인 성품과 섬김으로 마음 속에 갈무리하십시오. 좋은 열매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3] 마음과 말의 통합

통합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입니다. 도덕적인 말,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에 쌓은 선 더미에서 나오는 말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판단(어리잖아), 불신(모르잖아), 조정(내 말 들어야 해), 폄하(아직 멀었는데...)를 갈무리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명목으로 정당화되면 안 됩니다.

혀(말)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약 3:8). 따라서 생명의 말이 나오게 하려면 선 더미의 마음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한 마디 말 때문에 죽고, 삽니다. 말 때문에 죽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 속에 판단과 무시로 갈무리했기 때문이고, 말 때문에 사는 이유는 사랑과 이해와 수용으로 갈무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 받는 선한 것으로 마음 속에 갈무리하고 선한 말로 통합하는 성숙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우리의 말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45 절 참고)
2. 선한 말을 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